

■ 황혼이혼 하는데 ...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 ‘분할청구’ 헤어진 배우자와 나눠 받아

수급사유 발생 3년내 청구  
수급권자 재혼해도 가능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면서 갈라선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른바 ‘황혼이혼’은 해마다 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2014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은 3만2433건이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이혼은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황혼이혼이 전제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을 하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가질 수 있다. 돌봄노동을 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외국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749명이며 연금제도가 성숙해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



‘황혼이혼’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혼을 하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가질 수 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이어야 하며, 나아가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이런 3년의 제척기간(수급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간 받은 노령연금에서 나눠가진 분할연금만큼 환수당하게 된다.

일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

혼한 배우자의 생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재 분할연금에서 쟁점이 되는 연금분할의 시기를 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이혼 시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글로벌 증시 강제 힘입어 1950포인트 박스권 예상 삼성그룹주 향방에 주목

미국 FOMC 발표와 일본의 공격적인 추가 경기부양책에 글로벌 증권시장이 화답하며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갱신했고 나스닥지수도 2000년 3월 전고점에 근접하며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도 그룹지배구조 이슈가 재부각된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낙폭과 대대형주가 상승하며 196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FOMC에서 미국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간 4조 4000억달러(현재 원화환율기준 4700조원)의 뭉치돈을 풀었던 미국의 양적완화(QE)정책을 10월에 종료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정책과 관련해 상당기간 조치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고 미국 증시는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가에서 미국 금리인상시기를 내년 6월이후로 예상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강세 추세는 빨라질 것이다. 양적완화에 따라 달러유입이 컸던 이머징국가를 중심으로 달러유출이 빨라질 수 있어 향후 환율추이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가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니케이지수가 하루만에 4.8% 상승하며 전 고점을 돌파했다. 엔달러 환율이 112.36엔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13.05원 등등했다. 원엔 환율은 950원대를 기록했고 엔화의 추가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에는 900원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일본과 경합하는 우리 수출제품에 가격경쟁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까지의 엔화 약세에도 수출 단가를 그만큼 내리지 않고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왔는데 이제는 단가를 인하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경쟁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에서 구조조정으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정책변화에 주목하며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 국내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강제와 함께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반등이 예상되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코스피지수도 2000포인트가 당분간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1950포인트선이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은행 가계대출 500조 넘었다

9월말 현재 500조 2천억  
증가세 둔화·연체율 하락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는 둔화됐고, 연체율도 하락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원화) 잔액은 1227조5000억으로 8월 말보다 0.7% 증가했다. 대기업대출(178조6000억)은 8월 말보다 1000억원 감소했고, 중소기업대출(517조8000억)은 2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전월(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가계대출은 9월에만 4조3000억원이 증가해 500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증가분(5조1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348조5000억원)이 9월에만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은행의 9월 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86%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의 분기말 부실채권정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연체 정리 규모(3조1000억원)가 신규 연체 발생액(2조원)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7%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89%)은 0.15%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14%)은 0.1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59%)은 0.12%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50%)은 0.06%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0%)은 0.27%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9월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일부 취약업종의 연체율 악화가능성 등을 고려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자동차보험 손해율 ‘서고동저’

전남·전북·인천 ↑ 부산·울산·경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전북·충남·인천 등이 높고, 부산·울산·경남 등은 낮은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해졌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북(81.4%)과 전남(81.3%)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전(81.2%) 충남(80.7%) 인천(80.3%)도 손해율이 80%를 웃돌았다. 반면 제주가 66.0%로 손해율이 가장 낮았고, 울산(71.1%) 경남(71.8%)이 뒤를 이었다. 부산(74.8%) 경북(74.9%) 등도 손해율이 75%를 밑도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지역적 편차가 컸다. 서쪽 지역 손해율은 높고, 동쪽 지역은 낮은 서고동저 현상도 뚜렷하다.

이 같은 지역별 차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도로 여건과 안전시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굵은 길이 많고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아 차

지역	전년	올해	지역
전남	81.4	75.8	서울
전북	81.3	75.6	강원
대전	81.2	74.9	경북
충남	80.7	74.8	부산
인천	80.3	74.4	세종
광주	79.1	71.8	경남
충북	76.9	71.1	울산
대구	76.7	66.0	제주
경기	76.6		

※상반기 기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손해율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다. 따라서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사고가 잦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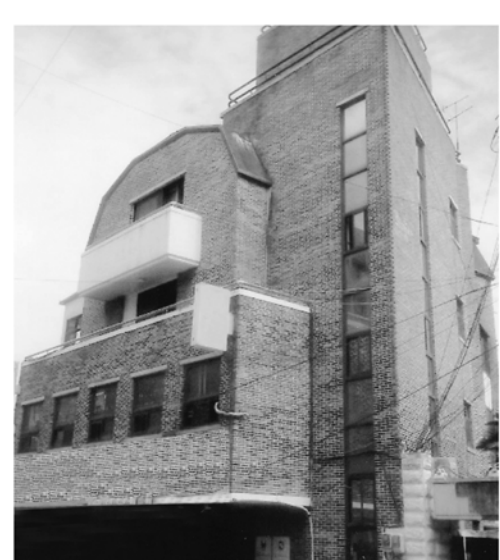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만원 가,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대형주차장, 텃밭, 전체울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울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 오피스텔 매매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울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